

캘리그래피

글씨도 예술이다

인생은 글씨

각광받는 캘리그래피의 세계

스토리 담긴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

영화포스터·간판·상품명까지 '대세'

글씨도 문화가 되는 시대다. 디지털 서체가 갖는 한계를 벗어나 '따뜻하면서도 못난이 스타일' 느낌의 손글씨는 이제 '캘리그래피'라는 이름을 갖고 '예술'이 됐다.

캘리그래피(Calligraphy)는 아름답게 쓴 글씨를 말한다. 용어 자체의 의미를 풀이하면 붓이나 펜을 이용해 종이나 천에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말하지만,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라고 표현하는게 이해가 쉬울 듯 하다.

캘리그래피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대세다. 영화 포스터는 물론이고 책 표지, 행사장의 플래카드, 간판, 각종 상품들의 제품명까지 캘리그래피가 섭렵하고 있다.

단순히 글씨를 쓰는 기술을 넘어 스토리를 담은 캘리그래피는 영업점의 간판에서는 업주와 고객 간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정서적 소통의 역할을, 감성 넘치는 시 한편을 표현하면 인테리어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다.

광주에서 손글씨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애란(38)씨는 캘리그래피 작가다. 디자이너였던 박씨는 5년전 독학으로 캘리그래피를 공부한 남편 박종준(36)씨를 만나면서 손글씨의 매력에 빠졌고, 남편의 외조에 힘입어 전국을 돌며 자신만의 글씨를 전파하고 있다.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하고 있으며, 의뢰를 받아 작업한 캘리그래피 플래카드가 광주 시내 곳곳에 걸려 있다. 지난해에는 그녀가 쓴 '도전하라! 제2의 청춘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청와대 만찬 행사장에 걸리기도 했다.

인터넷 블로그에서 '작가필방군'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씨에게 캘리그래피는 '향기'다. 글씨에 묘한 향기가 있어서 쓰는 이에 따라 향기가 다르고 그 사람들의 독특한 마음이 난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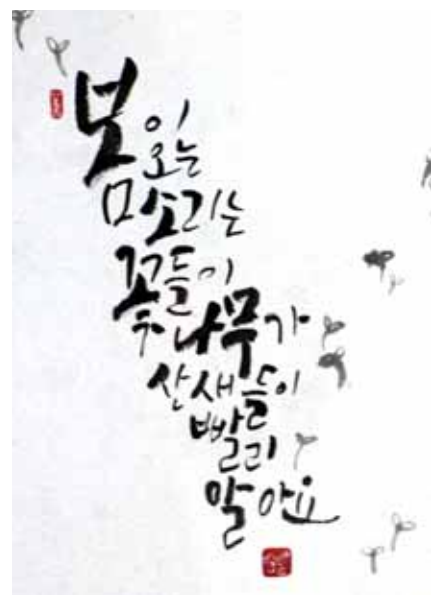
북구 임동에 있는 작업실 '캘리디자인숲'에도 다양한 내용이 나는 글씨가 가득했다. 그림을 그리듯 흘러 글씨나 동글동글 얼룩표정을 이용한 글씨, 도장을 박듯 벽돌처럼 찍어낸 글씨에서 저마다의 향기가 나는 듯했다.

캘리그래피 작업에는 다양한 재료가 쓰인다. 서예 붓은 기본이고 스펀지나 면봉, 젓가락, 주걱, 막대기, 심지어 수세미까지 '살마'하는 도구까지 모두 동원된다.

"같은 붓으로 글씨를 쓰더라도 먹물의 농도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고, 재료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기도 해요. 캘리그래피의 매력은 같은 재료로 같은 글씨를 써도 슬때마다 느낌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캘리그래피를 시작하면서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박씨에게 캘리그래피는 행복이고, 사랑이며, 겸손이다.

"처음부터 멋진 필력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도 날마다 조금씩 발전하면서 새로운 필체를 발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전해지는 따뜻한 글씨를 쓰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행복한 글씨를 선물하고 싶어요."



'불링블링 행복한 꿈'을 써보이는 캘리그래피 작가 박애란씨. 박씨는 캘리그래피를 통해 한글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손글씨 전문학원 운영하는 박애란씨

"마음 전하는 글씨로 이웃에 행복 전달"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홍성담 작 '바리'



하루 작 'Delicious scape winter'

홍성담의 '바리'를 만나다

후배 작가 하루 전시 지원... 문화예술공간 메이플 10일까지

문화예술공간 메이플에서 1일부터 10일까지 홍성담 신작전 '바리'(3, 4층)와 청년작가 하루의 '맛있는 산수·봄·여름·가을·겨울'(2층)이 함께 열린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홍씨가 후배 작가의 창작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하루씨의 전시 비용 일체를 지원해 여는 전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80년 4월 시민군 선전대로 활약했던 홍성담은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 학생축전에 보낸 걸개그림 '민족해방사' 주동자로 지목돼 3년간 수감생활을 겪었다.

그는 국제 엠네스티 선정 올해의 양심수 3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메이플에서 '아홉개의 총알'전을 선보였던 홍성담은 이번 전시에서 그가 지난해 펴낸 그림소설 '바리'(삶장 간)에 실렸던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 책은 서사무가 '바리데기'에서 주제를 차용한 소설로, 출소 이후 자신의

무의식에 어른거리는 세계를 그림과 글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어떤 이는 이 책을 "글이 그림이 되고, 그림이 글이 되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서사무가 '바리데기'에 등장하는 바리는 병든 부모를 구하기 위해 저승의 문턱을 넘는 인물로 묘사된다. 홍성담의 책에 등장하는 바리는 누이로, 연인으로 혹은 화가 자신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여준다.

현재 '광주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중국에서 작품활동 중에 귀국한 한국화가 하루는 이번 전시에서 '맛있는 산수' 연작을 선보인다. 이 연작은 산수화 바탕에 서양회화의 기법으로 음식과 그릇을 표현한 작품으로 동양회화의 새로운 세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작가의 바람이 담겨 있다.

오프닝은 1일 오후 7시로 '바리' 출판기념회와 함께 열린다. 문의 010-6791-805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현대미술지 'NOON' 5호 나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발행하는 현대미술정론지 'NOON' 5호가 나왔다.

'NOON' 5호는 '사회·사회적인 것'을 주제로 시각 문화 현상에서의 사회적 담론과 사회적 예술 생산이 지닌 변화의 가치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호에는 슬로베니아 출신 세계적인 석학 슬라보예 지젝의 특별 인터뷰가 눈길을 끈다.

이용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서동진, 강수미, 김수기, 이택광씨 등 4명의 편집위원이 '사회적인 것'을 주제로 진행한 원탁 토론 등이 실렸다. 또 클레어 비



슈 뉴욕시립대 교수, 자크 뉘클로 파리 10대학 교수, 스테판 온손 스웨덴 린셰핑대 교수 등의 글도 담았다.

슬라보예 지젝은 이택광 경희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정세와 이데올로기의 대립, 분단된 한국 사회에 대해 진단했다. 판매가는 1만 5000원. 문의 062-608-422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극장 3일 '변호인' 상영... 제작자와 대화도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양우석 감독)이 다시 한번 영화팬들을 만난다.

광주극장은 오는 4월 3일 오후 7시 '변호인' 특별상영회와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부산에서 일어난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변호인'은 속물 변호사가 시국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사회의 부조리에 눈뜨게 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최고의 연기를 선보인 송강호를 비롯, 김영애·곽도원 등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본 영화 상영 후 10분 분량의 미공개 영상도 관람객을 만난다. 또 '변호인' 제작자인 최재원 위더스 필름 대표가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한다. 최 대표는 영화 기획부터 섭외, 촬영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영화 관람료 2000원.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1등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기), 2008년(2기), 2010년(3기), 2012년(4기), 2014년(5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율동로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